

“호남에만 없는 시내면세점 개설요건 완화를”

“광주·전남·전북 관광객 유치 걸림돌 작용”

무역협회, 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안 제출

“지역 관광업 위해 시내면세점 개설 요건 완화해주소.”

광주·전남지역의 시내면세점 개설을 위한 관련기관의 행보가 펼쳐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최근 시내면세점 부재(不在) 지역에 대한 신규 개설요건 완화를 골자로 한 규제개선 건의안을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무역협회는 “서울과 강원, 충청, 영남

등 국내 총 19개의 지역에서 시내면세점이 운영 또는 신규 개설이 준비 중이지만 호남권(광주·전남·전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내면세점 개설이 시급하다”며 “지역 시내면세점 부재는 해외 관광객 유치와 지역 서비스산업 활성화에 큰 걸림돌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국내에 시내면세점을 추가로 설치하기 위해서는 전년도 전체 시내면세점의 이용자 수 및 매출액(판매액) 중 외국인에

대한 비율이 각각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 광역 지자체 별 외국인 관광객 방문자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해야 하는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하지만 광주·전남지역 전체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13년 기준 40만8000명에 그쳐 전년대비 30만명 이상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내면세점 설치가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이 있지만 400억원에 가까운 초기 투자 비용을 감당할만한 중소·중견기업이 드물어 실제 투자가 일어나지 못하는 점도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2년 호남권 중견기업이

상기 예외규정에 따라 순천시에 시내면세점 개설을 추진했으나 수익성이 맞지 않아 사업권을 반납한 사례도 있다.

한국무역협회 광주전남지역본부 관계자는 “광주·전남은 전례의 관광 자원과 더불어 최근 호남선 KTX 개통으로 접근성까지 좋아져 국내의 해외 관광객들을 지역으로 이끌어 올 수 있는 좋은 여건이 마련돼 있다”며 “이번 시안이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을 통해 정부에 최종 건의됨에 따라 향후 지역 현실을 반영한 시내면세점 개설요건 완화와 광주·전남 서비스산업의 활성화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12일 이근 본부장 등 농협 임·직원들이 광주시 북구 신용동에서 열린 직거래장터에서 지역 농협에서 생산한 마늘과 고추 등을 판매하고 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 제공>

면역력 높이는 마늘·고추 싸게 팔아요

농협광주본부, 금요직거래장터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농협이 직거래 장터를 통해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농산물을 시중보다 싼 가격에 판매하고 있어 주목된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이근)는 지난 12일 광주시 북구 신용동 북광주농협 신용동직접 앞에서 ‘도농상생 금요직거래장터’를 열고 면역력 증진에 도움을 주는 마늘, 고추, 버섯 등 우리

농산물 모음전 특판행사를 가졌다고 14일 밝혔다.

이 날 장터에서는 평균·항바이러스에 탁월한 것으로 알려진 마늘과 고추, 버섯 등이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소비자들의 인기를 끌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제철 우리 농산물을 시세보다 최대 20% 싸게 판매하는 도농상생 금요직거래장터를 오는 11월까지 계속 열 예정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1천원 전지은행권 인기 사흘동안 2만여장 팔려

한국은행이 10년 만에 출시한 ‘1천원 전지은행권’이 ‘금융계의 허니버터칩’으로 불리며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전지은행권은 전지 크기의 종이에 돈이 여러 장 인쇄된 것이다. 한국은행은 창립 65주년 기념으로 1천원짜리 ‘진짜 돈’ 45장이 가로 5장, 세로 9장씩 붙어 있는 전지은행권을 발행해 지난 9일부터 본점 화폐박물관 내 기념품 코너와 판매대행업체 홈페이지(www.seowonbok.co.kr)에서 팔고 있다. 전지은행권은 액면가에 세금과 포장비 등을 합쳐 장당 5만9500원이고, 1인당 3세트까지 살 수 있다. 총 발행물량은 10만 장이다.

14일 한은에 따르면 전지은행권이 판매되기 시작한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2만여 장이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주 고객층은 수집가들로 추정된다. 또 여러 장이 함께 붙어 있는 새 지폐를 행운이나 재운을 불러오는 부적으로 생각해 구매하려는 시민들도 많다. 전지은행권을 액자에 넣으면 새로 창업하는 업체나 점포에 선물로 주기에 안성맞춤이라는 것이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메르스 직격탄 양동시장 방문한 조환익 사장 14일 광주시 서구 양동시장을 방문한 조환익(왼쪽 두번째) 한국인력 사장이 한 점포에 들러 물건을 사고 있다.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여파로 매출이 줄고 있는 서민 경제의 현장을 둘러 본 조 사장은 이날 구입한 쌀과 견과류, 과일 등을 광주 애육원에 기부했다. <한전 제공>

기준금리 내리자 은행 예·적금 금리도 줄줄이 인하

농협·외환은행 등 0.25%P~0.2%P ↓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인 1.5%로 내리자 시중은행들이 속속 예·적금 금리 인하에 나서기 시작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NH농협은행은 16일부터 일부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전 날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폭(0.25%포인트)가량 낮출 계획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시장금리에 따라 변동해 온 다른 상품들과 달리 ‘큰만족실세예금’과 적금 등 그동안 시장금리가 반영되지 않아 인위적으로 내려야 하는 상품들이 일부 있다”며 “이 상품들에 기준

금리 인하를 반영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협은행의 큰만족실세예금은 현재 1년 기준으로 1.55%의 기본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외환은행은 지난 12일 YES큰기쁨예금 상품의 금리를 1년제는 0.25%포인트, 2년 이상은 0.2%포인트 인하했다. 이에 따라 종전 1.65%의 기본 금리를 제공하던 이 상품의 1년제 기본 금리는 1.40%로 내려갔다.

다른 시중은행들도 아직 결정하지는 않았지만, 인하 폭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 시중금리의 변동 상황과 다른 은행들의

움직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지만 대부분 은행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늦어도 이달 안에는 금리를 인하하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등 지역은행 역시 조만간 예·적금 상품의 금리를 기준금리 인하폭에 맞춰 낮출 것으로 보인다.

한 시중은행의 관계자는 “이번 기준금리 인하는 예상 밖의 결정이었던 만큼 기존의 은행 금리에 선반영되지 않은 면이 있어 많은 은행이 인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과거 사례를 비교하면 이른 시일 안에 대부분 반영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로또복권 (제654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6 21 26 31 36 43	6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 일치	1,879,301,391	8
2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6,315,003	69
3 5개 숫자 일치	1,402,203	1,787
4 4개 숫자 일치	50,000	77,788
5 3개 숫자 일치	5,000	1,282,725

광주디자인센터, 인쇄사업 본격 육성

인쇄경영자 교육생 20명 모집

광주디자인센터가 지역 인쇄사업을 본격 육성한다.

광주디자인센터(원장 장상근)는 오는 17일까지 인쇄업종 경영자 교육과정 1기 교육생 20명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시와 중소기업청이 지원하는 ‘2015년 소공인 특화 지원 센터’ 사업에 따라 추진되는 이 교육은 인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인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교육과정은 리더십과

노사관리 등 기초과정부터 마케팅과 정보화, 인쇄공학 등 전문과정까지 포괄한다.

광주디자인센터 관계자는 “전남도청 이전과 인터넷 및 스마트 환경으로 바뀌면서 광주시 동구 남동 일대의 인쇄업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역 인쇄출판 업체를 효과적으로 지원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광주시와 함께 인쇄산업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의(062-611-5170).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기아차 ‘투명회계 우수기업’ 대상 수상

기아자동차가 지난 1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진행된 한국회계학회 주최 ‘2015 투명회계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자산규모 2조원 이상 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기아차는 전자적으로 통일된 표준 회계기준을 적용하고, 철저한 내부회계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경영 투명성을 높여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기아차는 전자

적으로 통일된 업무 프로세스를 구축하고, 엄격한 사전관리를 통해 재무 정보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는 등 투명회계를 위해 꾸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아차 관계자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투명경영을 더욱 강화해 회사 경영은 물론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률기자exian@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진



시술후



시술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리안1가든 상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특허방수 2중단열 방수 전천후 시공성 절연방식 시공 내구성 탁월

특허(제10-1097784호)
특허(제10-0562035호)
특허(제10-0548189호)

하자없이 20년은 너끈히가는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 추천제품

특허(제10-1239196호)
특허(제10-0562035호)

트라이슈머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낡은 건축물을 새 건축물로~ 차별화된 익스테리어로 건물의 새로운 가치창조를 통한 재테크 효과~ 방수와 디자인까지 일석이조! 단열효과로 냉난방비 절감까지~

시공후 시공전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검색창에 **이파엘지** 를 쳐보세요.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